

6월 12일 수능 모의평가

국어 영역
(A형/B형)

교시



국어 영역(A형)

분석 및 해설

정답	01 ⑤	02 ⑤	03 ③	04 ①	05 ⑤	06 ①	07 ③	08 ②	09 ④	10 ①
	11 ①	12 ③	13 ⑤	14 ①	15 ②	16 ④	17 ①	18 ④	19 ⑤	20 ⑤
	21 ⑤	22 ③	23 ④	24 ⑤	25 ④	26 ⑤	27 ①	28 ⑤	29 ②	30 ①
	31 ②	32 ④	33 ⑤	34 ④	35 ②	36 ④	37 ③	38 ①	39 ③	40 ⑤
	41 ②	42 ④	43 ③	44 ③	45 ②					

출제 문항 분석

문항	난이도	제재	출제 의도
1	하	화법	발표 내용의 평가
2	중	화법	듣기 전략의 이해
3	중	화법	말하기 방식의 이해
4	하	화법	대화 형식의 비교
5	중	화법	학습 활동 평가
6	하	작문	작문 계획 평가
7	중	작문	글쓰기 방식의 이해
8	중	작문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9	하	작문	작문의 특성 파악
10	하	작문	조건에 맞추어 쓰기
11	상	문법	음절의 이해
12	중	문법	보조사의 이해
13	중	문법	사동과 피동의 이해
14	중	문법	띄어쓰기의 이해
15	중	문법	호칭어와 지칭어
16	하	예술	내용 전개 방식
17	하	예술	내용의 사실적 이해
18	상	예술	내용의 사실적 이해
19	중	예술	외부 정보와의 비교
20	중	기술	내용의 사실적 이해
21	상	기술	내용의 추론적 이해
22	중	인문	내용의 사실적 이해
23	하	인문	관점의 적용
24	중	인문	내용 추론
25	중	인문	어휘 바꾸어 쓰기
26	하	과학	내용의 추론적 이해
27	하	과학	사례 적용하기
28	하	사회	내용의 사실적 이해

문항	난이도	제재	출제 의도
29	중	사회	내용의 사실적 이해
30	하	사회	내용의 추론적 이해
31	중	현대시	표현상 특징과 효과 파악
32	중	현대시	시어와 시구의 의미 파악
33	중	현대시	비교 감상
34	중	현대 소설	서술상의 특징 파악
35	하	현대 소설	소재의 의미 파악
36	중	현대 소설	장르 변화의 적절성 파악
37	하	현대 소설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8	하	현대 소설	한자성어의 활용
39	하	고전 소설	서술상의 특징 파악
40	중	고전 소설	대화 내용의 이해
41	중	고전 소설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42	하	고전 소설	독자의 반응의 적절성 평가
43	중	고전 시가	표현상 공통점 파악
44	중	고전 시가	시어와 시구의 의미 파악
45	중	고전 시가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출제 경향

❖ 화법

작년 6월과 9월 모평에서는 발표(2문항), 라디오 대담(1문항), 친구 간의 대화(2문항)이 제재로 출제되었는데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올해 6월 모평은 발표(2문항), 텔레비전 방송 대담(3문항)이 출제되었다. 문항 구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담화 내용 조직, 듣기 전략, 말하기 방식, 담화 유형(대담과 대화)의 차이, 매체 활용 등 화법 교육 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수능과 연계함으로써 교과 과정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작문

소개문과 건의문, 그리고 작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고쳐 쓰기, 작문의 특성, 조건에 맞추어 쓰기 문제가 출제되었다. 작문의 특성은 작년 수능에서도 출제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대체로 이전의 작문 문제 유형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난이도 측면에서도 그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평이했다.

❖ 문법

문법 문제의 경우 주어진 정보의 단순 적용 능력 평가에서 벗어나 구체적 문법 지식의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진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하겠다. ‘국어의 음절 유형’, ‘격조사와 보조사’, ‘사동사와 피동사’, ‘단어의 띄어쓰기’ 등 음운, 품사, 통사 각 영역 전반에 대한 문법적 지식들을 직접 묻는 경향을 보였다. 문법 학습에 충실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 독서

• 예술

A, B형 공통 출제 지문으로 EBS 인터넷 수능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하지만 실제 연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EBS 교재에 수록된 지문에서는 영화의 연출 기법 중 하나로 ‘맥거핀’이 소개되었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작가주의적 비평기에 의해 재평가된 할리우드 영화감독 히치콕의 개성적 연출 기법으로 실짝 언급되었다. 즉, ‘맥거핀’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지만 글의 중심 내용은 완전히 상이해 지문이 연계되었을 체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 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난이도도 평이했다.

• 기술

‘조명 기구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는 글로서 EBS 인터넷 수능 교재와 일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예술 제시문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내용만이 연계되어 실제 체감 연계율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문항수도 2문항으로 적고 대개의 기술 지문에서 학생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시각 자료를 활용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아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인문

‘고고학자들의 유물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출제되었다. EBS 교재와 연계되지 않은 지문이다. 생소한 내용이나 독해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아니었다. 24번 문항은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로 비교적 생소한 유형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 과학

우유를 열처리하는 원리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기준의 출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D값과 Z값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27번 문제는 내용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까다로울 수 있었다.

• 사회

사회 지문의 단골 지문인 경제 관련 지문이 출제되었지만 내용은 평이했다. 이 지문은 EBS 인터넷 수능(P.164)과 연계되었는데, 인센티브 방식을 ‘명시적’

과 ‘암묵적’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구분하여 서술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 유형은 3문제 모두 서술한 내용을 이해하는 유형이었고 비교적 평이한 문제였다.

❖ 문학

• 현대시

나희덕의 ‘그 복승아나무 곁으로’는 인터넷 수능(A형) P.48에 수록된 작품이다. 시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내재적인 감상과 이해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문제 유형은 기준의 문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비교 문제에서 비교 대상이 수필이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 현대 소설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는 수능 특강 A형, B형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작품이다. 평이한 내용이므로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 판단된다. 부분적인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 어휘의 이해, 장르 전환 시 고려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외적 준거를 활용한 감상, 문맥적 의미에 맞는 한자숙어 찾기 등이 출제 되었다. 37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 문제는 평이했다.

• 고전 소설

‘홍부전’이 출제되었다. 이 작품은 수능특강 B형에서 연계 출제되었지만 제시문은 전혀 다른 부분에서 발췌하였다. 그러나 홍부전의 경우 익숙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을 알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았을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42번 문제는 속담과 연계하여 사건을 파악하는 문제였고, 41번 문제는 전체 서사를 모방답 구조로 도식화한 후 그 틀에서 사건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문항 구성은 서술상의 특징, 사건의 흐름,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등으로 평이한 구성이었다.

• 고전 시가

평시조 두 작품과 한시가 묶여서 출제되었다. 이조년의 시조와 최치원의 ‘축구화’는 각각 EBS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고1 교과서나 문학 교과서에서 익숙하게 접한 작품이어서 독해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문제 또한 대체로 평이하여 작품의 대체적인 특징만 파악하면 크게 어렵지 않았다. 다만 45번 문제는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었다.

학습 대책

❖ 화법

화법은 교육 과정상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출제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제시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면 풀 수 있을 정도로 출제되고 있다. 교육 과정상의 내용을 와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내용, 즉 화법의 특징, 담화의 유형별 특성 등을 사전에 이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문

제시문과 보기지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읽어 낼 수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쓰기 전략을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 훈련해야 한다. 제시문과 보기 및 선택지를 꼼꼼히 대조하여 이 선택지가 왜 답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전개 방식, 표현법 등은 완전히 숙지해 두어야 한다.

❖ 문법

문법 영역은 음운, 형태소, 조사, 어미, 품사, 문장 등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휘의 이해와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학생들이 문법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교과서나 기본 교재를 통해 다양한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소한 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을 때, 문법이 더 이상 어려운 영역은 아닐 것이다.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문법의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선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 독서

• 예술

예술 지문에서는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심지어 건축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장르를 설명하기보다는 미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예술 장르로 바라보는 지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각 장르의 배경지식 파악보다는 지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미학적 관점의 파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글에서 제시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론적인 글의 경우에는 개념들에 주의를 하고, 작가나 작품에 대한 설명인 경우에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과학

과학 지문은 과학 현상의 원리나 그 과정 등을 설명하여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다. 이러한 지문을 학습할 때는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독해하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세부 정보에 주목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글에서 설명하는 화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글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부 정보는 다시 해당 내용을 글에서 찾으면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은 필요 부분만을 찾아 이를 남들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인문

EBS 연계 교재를 제시문 그대로 출제하는 것으로 오히려해서는 안 된다.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어진 주제나 화제를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과 함께 비문학 제시문의 독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문 영역의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가 개념인 경우에는 일상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관점들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우선 파악한 후에 글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여 정보들을 정리하는 독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EBS 연계 교재의 경우는 화제나 핵심 개념, 주요 이론들을 독해 훈련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기술

기술 지문에서는 학생들에게 기술의 핵심 원리나 작동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배경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기술을 설명하는 다양한 지문을 접해 보면서 제시문에 담긴 원리나 과정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독해 훈련을 해야 한다. 특히 기술 지문은 짧은 분량의 글에 비해 담고 있는 정보량이 많으므로, 제한된 시험 시간 안에 주어진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다루고 있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여 시안별로 정보를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제만을 단순히 풀어보는 차원을 넘어 수록된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훈련할 필요성이 있다.

• 사회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지문에 대한 이해와 내용 정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 이때 EBS 연계 지문을 경

제, 정치, 사회, 언론 등으로 묶어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월 모의평가만을 기준으로 하면 EBS 연계 교재 지문의 내용적 연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 내용을 잘 정리해 놓는 것으로 충분한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학

• 현대시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을 특징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어와 시구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작품을 정리할 때 기준에 학습했던 다른 작품, 혹은 수필 등과 공통된 소재나 어구 등이 있다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이다.

• 현대 소설

소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때 전체적인 서술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분적인 서술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서술자가 그와 같은 서술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적 준거를 활용한 감상 문제는 유형적으로 접근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 접근법에 대한 이해와 연습을 해야 한다.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문제는 작품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유형을 연습할 때, 선택지가 과연 작품 내용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 고전 소설

EBS 교재와의 연계가 높은 장르이다. 그러므로 EBS 교재의 출제 작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인물의 특성과 인물들 간의 관계를 위주로 주요 사건을 정리하고 사건의 의미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모의평가의 경우처럼 전문이 EBS 연계 교재와 다른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적인 줄거리

와 중요한 사건, 소재와 배경의 의미와 기능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낯선 소설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설의 독해 훈련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시된 작품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인물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가운데,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익히고 자주 나오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 연습을 병행해 나간다면 고전 소설에서 그리 어려움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 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되는 즉 정전(正典)으로 인정받은 작품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전 소설 영역은 일단 익숙한 작품일수록 확실하게 이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고전 시가

EBS 연계 교재와의 연계가 두드러지는 장르이다. A형의 경우 현대어로 번역된 글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B형의 경우 원문에 대한 자기 독해가 가능하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시상 전개의 구조 등은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특히 시구를 정확하게 해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해설

[01~05] (화법)

01 | 발표 내용의 평가

정답 : 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지도 않았고 토론, 전, 중, 후에 독서 토론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지도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글의 첫째 문단에서 “결과가 궁금하시죠?”라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했다.
- ② “설문 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 동아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서 토론 노트 사용을 제안한다고 하여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을 밝혔다.
- ③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토론 노트 사용이라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것을 사용하면 책을 읽어 오지 않는 학생들 및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토론을 방해하는 학생들도 줄어들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④ 담화 표지란 담화 표지란 대화에서 내용의 예고, 강조, 요약, 예시, 열거 등의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집중, 내용 구별, 내용 정리, 기억 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글에서도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첫째”, “둘째”, “셋째” 등의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02 | 듣기 전략의 이해

정답 : ⑤

학생5는 발표자 말에 공감하여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겠다고 말했을 뿐, 발표자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들은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③ 학생3은 발표자가 앞에서 제시한 설문 조사가 참여율이 낮았음을 언급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듣고 있다.
- ④ 학생4는 발표자의 가치 판단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공정성을 판단하며 듣고 있다.

03 | 말하기 방식의 이해

정답 : ③

“제가 어릴 때 듣던 대중가요네요.”에서 진행자가 자

신의 경험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해설가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소나무가 아닌가요?”, “소나무인가요?” 등에서 해설가의 물음에 대해 질문의 형식을 취하며 답변하고 있다.
- ② “네, 정말 멋진 산수화네요. 그림을 보니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에서 해설가의 말에 호응하며 해설가의 발언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해설가의 답변을 들은 뒤에 “굽은 모습 때문이라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⑤ “소나무의 아름다운 외형과 그것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에서 해설가의 설명을 요약하면서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04 | 대화 형식의 비교

정답 : ①

이 대답에서 진행자와 해설가는 하십시오체, 해요체 등의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기〉의 언니와 동생은 두루낮춤 표현인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답은 〈보기〉에 비해 경어적 언어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이 대답은 텔레비전 방송 대답이므로 시간적 제한이 있다.
- ③ 〈보기〉에서 언니와 동생이 일정한 절차를 중시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이 대답은 특정한 목적을 미리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이 대답은 복수의 가상적 청자를 의식하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05 | 학습 활동 평가

정답 : ⑤

이 대답의 해설가가 시냇가 버드나무를 영상으로 보여준 것은 그것이 20세기 대중가요에 가장 많이 등장한 나무이며, 고향을 연상케 하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해설가가 버드나무와 소나무가 대비되는 예술적 가치

를 지닌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6~10] (작문)

06 | 작문 계획 평가

정답 : ①

(가)에 ‘똑똑 우체통 사용 시 유의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답 피하기

- ③ “학생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똑똑 우체통의 장점을 밝혔고, “학생 자치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기에 매일 우체통을 확인”한다고 한 부분에서 똑똑 우체통의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 ④ “똑똑 우체통은 ~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하면 똑똑하게 반응하는 우체통이란 뜻입니다.”에서 똑똑 우체통의 뜻을 설명했다.
- ⑤ “똑똑 우체통을 잘 활용한다면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학생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에서 똑똑 우체통의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07 | 글쓰기 방식의 이해

정답 : ③

(나)에서 실내화 착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85% 이상인데 전체 학생의 50% 정도가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여 견의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정답 피하기

- ⑤ 글쓴이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쓰는 것보다 제삼자인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이 견의 내용의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저 역시 흙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 늦은 적이 있습니다.”에서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였고 계단이나 복도를 청소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08 |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 : ②

㉡의 앞뒤 문장을 역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나’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나 ‘또한’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 작문의 특성 파악

정답 : ④

(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글을 구성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에서 그 계획에 따라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10 | 조건에 맞추어 쓰기

정답 : ①

(㉠)에 의하면 (나)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은 잡상의 가치를 제시한 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며 끝맺어야 하며, 표현은 직유법을 활용해야 한다. ①은 “잡상은 길가의 들꽃처럼”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였고, “궁궐의 안녕을 기원하는 선조들의 마음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잡상의 가치를 제시했으며, “이런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끝맺고 있다.

정답 피하기

- ②, ③, ④, 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글을 끝맺지 않았고, ④와 ⑤는 직유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④는 잡상의 가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궁궐과 잡상이 조화의 정신을 보여 주는 문화유산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15] (문법)

11 | 음절의 이해

정답 : ①

〈자료〉의 ㄴ, ㄹ에서 초성으로 ‘긱, 띠’ 등의 된소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된소리는 하나의 자음이므로 초성에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정답 피하기

ㄱ~ㄹ의 예를 통하여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임을 확인할 수 있고(②), ㄷ~ㄹ을 통하여 종성이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임을 알 수 있다(③). ㄱ은 초성과 종성이 없는 음절이고 ㄴ은 종성이 없는 음절이므로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④),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 ㄱ~ㄹ에 모두 종성이 들어 있으므로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⑤).

12 | 보조사의 이해

정답 : ③

격조사와 달리 보조사는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테’는 부사격 조사로 부사 어에만 쓰인다.

오답 피하기

‘만’, ‘은’, ‘도’, ‘까지’ 등은 여러 문장 성분과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13 | 사동과 피동의 이해

정답 : ⑤

‘형이 친구에게 꽂다발을 안겼다’에서 ‘안겼다’는 형이 ‘안게 시켰다’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사동사로 쓰인 경우이고,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에서 ‘안겼다’는 아기 곰이 어미에게 ‘안김을 당했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피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둘 다 피동사로 쓰였다.
- ② ㉠의 ‘업혔다’는 피동사이고 ㉡의 ‘업혔다’는 사동사이다.
- ③ 둘 다 사동사로 쓰였다.
- ④ 둘 다 사동사이다.

14 | 띠어쓰기의 이해

정답 : ①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 것은 단어라고 했고, 단어와 단어는 띠어 쓴다고 했으므로 ㉠ ‘살아가다’는 붙여 쓴다.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 + 본용언’ 구성이라고 했고 본용언은 한 단어이므로 ㉡ ‘받아 가다’는 띠어 쓴다. 반대로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없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 + 보조용언’ 구성이라고 했으므로 ㉢이 그 중 전자라면 ‘닮아 가기다’로 쓸 수 있고 후자라면 ‘닮아 가다’로 쓸 수 있다.

15 | 호칭어와 지칭어

정답 : ②

㉠, ㉡, ㉢은 모두 은미 입장에서 고모부에 해당하고, ㉣, ㉤은 은미 입장에서 고모에 해당하는 호칭어나 지칭어들이다. 그 중 ㉤은 화자 기준의 지칭이 아니라 은미, 즉 청자 기준으로 지칭한 표현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 ㉤은 화자나 청자가 달라진 것 이 문제가 아니라 지칭 대상이 바뀌어 동일한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도 바뀐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할머니와 고모가 각각 화자에서 청자로, 청자에서 화자로 바뀌면서 고모부를 지칭하는 말이 바뀌었다.
- ③ ㉠의 화자는 할머니, 청자는 고모, ㉡의 화자는 고모, 청자는 ‘은미’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고모이고, 청자는 각각 할머니, ‘은미’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 ⑤ ㉢의 화자는 엄마, ㉣의 화자는 ‘은미’이므로 각각 청자인 고모를 부르는 호칭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16~19] (예술)

【지문 해설】

• **해제** : 이 글은 영화 비평 이론으로 서 등장한 작가주의의 개념과 그것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작가주의는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창된 비평 이론으로 작품과 작가를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작가주의는 할리우드 영화를 재평가했고 오늘날에도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 **주제** : 작가주의의 개념과 의의

16 | 내용 전개 방식

정답 : ④

이 글은 영화 비평계의 작가주의란 개념을 설명하고 할리우드 영화의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17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①

맥거핀은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극적 장치로, 히치콕의 영화에서 관객들이 확실한 단서로 인식했다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혹감을 느끼게 만드는 소품 등을 말한다.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 ② 마지막 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③ 첫째 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④ 셋째 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⑤ 셋째 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18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④

넷째 문단에서 ‘작가주의 비평가들(⑥)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⑦)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으므로 ⑥는 ⑦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9 | 외부 정보와의 비교

정답 : ⑤

⑦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반면 ⑧은 영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감독 역시 영화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⑧이 ⑦에 비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 보다 중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다.

[20~21] (기술)

【지문 해설】

- 해제 :** 이 글은 조명 기구의 종류와 발광 원리,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 기구에는 백열전구, 형광등, 발광 다이오드가 있다. 백열전구는 필라멘트에 전압을 가해 빛을 내는데 발광 효율이 매우 낮고, 수명도 매우 짧다.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자외선을 형광 물질에 닿게 해 빛을 낸다. 형광등은 백열전구에 비해 적은 발광 효율이 높고 수명도 길다. 발광 다이오드는 두 종류의 반도체 사이를 움직이는 전자가 두 반도체의 전압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발광 다이오드는 필라멘트와 같은 가열체가 없으므로 형광등에 비해 수명이 길고 에너지 손실이 작다.

- 주제 :** 조명 기구의 종류와 발광 원리 및 특징

20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⑤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자외선이 형광 물질에 닿으면서 빛을 낸다. 따라서 형광등의 수은 입자가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수은 입자가 형광 물질을 자극하여 빛을 만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④ 넷째 문단에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정해지면서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의 색을 띠게 된다.’라고 했으므로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빛의 색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21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⑤

발광 다이오드는 필라멘트와 같은 가열체가 없어 형광등에 비해 에너지 손실이 작다. 발광 효율은 소비 전력이 빛으로 전환되는 비율이므로 에너지 손실이 작다는 것은 발광 효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명용 발광 다이오드가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낮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② 둘째 문단에서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빛의 비율은 높아지지만’이라고 했으므로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를 낮추면 발광 효율은 낮아질 것이다.

④ 발광 효율은 소비 전력이 빛으로 전환되는 비율(빛/소비 전력)이므로 같은 양의 빛 에너지가 나오다면 소비 전력이 작은 쪽이 발광 효율이 높다.

[22~25] (인문)

【지문 해설】

- 해제 :** 이 글은 유물 자료에 대한 다양한 고고학적 해석 방법을 소개하고 그러한 다양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글이다. 고고학은 유물 자료에 대한 해석을 위해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 진화론에서부터 생태학적 이론 혹은 사회학적 이론까지 다양한 이론들이 활용되는데, 어느 하나의 특정한 이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자료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함을 필자는 역설하고 있다.

- 주제 :** 유물 자료에 대한 다양한 고고학적 해석 방법과 다양한 해석의 필요성

22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③

유물에 대한 연대 측정 기술의 발달과 발굴되는 유물의 양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23 | 관점의 적용

정답 : ④

토기로 조리한 음식의 종류는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⑤에 따르면 두께가 얇은 토기가 상대적으로 열을 더 잘 전달한다.
- ② ⑤에 따르면 곡물의 전분 함량이 많아지면서 토기의 두께가 얇아졌다.
- ③ ⑤에 따르면 전분이 많은 씨앗들은 오래 가열해야 하므로 열전도율이 높은 얇은 토기가 더 유리하다.

24 | 내용 추론

정답 : ⑤

④에는 유물을 사용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기호 변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토기의 두께가 급격히 얇아지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⑤의 새로운 토기가 유입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된’ 것은 ‘기호의 변화’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토기의 두께가 얇아지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④ 모두 주위 환경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로 토기의 두께가 얇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25 | 어휘 바꾸어 쓰기

정답 : ④

‘축적되다’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가 모여서 쌓이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이다. 따라서 ④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단어는 ‘나타나고’가 아니라 ‘쌓이고’이다.

[26~27] (과학)

【자문 해설】

- 해제 : 이 글은 우유를 열처리 할 때 적용되는 D값과 Z값의 개념과 원리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유를 열처리하는 저온살균법, 저온순간살균법, 초고온처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 주제 : 우유를 열처리하는 원리와 방법

26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⑤

넷째 문단에서 저온살균법이나 저온순간살균법으로 처리해도 죽지 않는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초고온처리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고온처리법을 사용하면 제거되지 않고 남는 미생물의 개체 수가 저온살균법을 사용한 경우보다 적다.

오답 피하기

- ① 우유는 양질의 영양소를 지니고 있고 원유를 가공하지 않으면 유해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원유는 유해 미생물이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추리해 볼 수 있다.

27 | 사례 적용하기

정답 : ①

둘째 문단에서 D값을 2배로 늘리면 개체 수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A와 B 모두 D값을 2배로 늘렸으므로 남은 개체 수는 1,000개에서 100분의 1인 10개로 같다.

오답 피하기

- ② B의 Z값이 5°C이므로 열처리 온도를 60°C에서 65°C로 올리면 B의 개체 수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 반면 A의 Z값이 10°C이므로 5°C만 올려서는 A의 개체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 수는 없다. 따라서 남은 개체 수는 A가 B보다 크다.
- ③ 개체 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 A의 Z값이 10°C이고, B의 Z값은 5°C이므로 A가 더 오래 견딜 수 있다.
- ④ A와 C 모두 각각의 Z값만큼 온도를 올려 열처리한 경우이므로 열처리 후 남은 개체 수는 동일하다.
- ⑤ B와 C 모두 Z값만큼 온도를 높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체 수는 1,000개의 10분의 1인 100개씩이 된다.

[28~30] (사회)

【자문 해설】

- 해제 : 이 글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인 인센티브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첫 문단에서 인센티브 계약에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이 있음을 밝힌 후, 둘째 문단에서 명시적 계약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특징, 장점을 서술하고, 셋째 문단에서는 이 계약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서술한다. 그리고 마지

막 문단에서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효과적일 수 있는 조건, 특징, 문제점, 유의점 등을 서술하고 있다.

- 주제 : 인센티브 계약의 두 가지 방식이 지닌 장점과 문제점

28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란 객관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한다. 그런데 넷째 문단에 의하면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든 경우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명시적인 인센티브 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에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계약을 통해 그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 ② 셋째 문단을 통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이 오히려 기업의 해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둘째 문단에 명시적 계약은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④ 넷째 문단에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 경우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보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29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②

‘암묵적 계약’은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은 아니다.’란 문장을 토대로 할 때 적절하다.
- ③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이란 구절을 토대로 할 때 적절한 설명이다.
- ④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맺어지는 계약이기 때

문에 상대방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손실이 더 클 경우 더 잘 지켜진다고 볼 수 있다.

- ⑤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할 때’ 협력 관계가 끊어진다고 서술하는 것을 토대로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더 잘 지켜진다고 볼 수 있다.

30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①

둘째 문단에 따르면 ‘ α (알파)’가 커질수록 근로자의 이익과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 따라서 ①은 ‘증가’이다. 그리고 셋째 문단의 ‘첫째’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소득이 불확실해지게 되면 기업의 이윤은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②는 ‘감소’이다. 또 3문단의 ‘둘째’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인센티브 왜곡이 커지게 되면 기업의 이윤은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③은 감소이다.

[31~33] (현대시) 나희덕, ‘그 복승아나무 결으로’

【작품 해설】

- 해제 : 이 작품은 복승아나무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처음에 복승아나무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멀리서만 바라본다. 그러던 중 화자는 복승아나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겹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복승아나무의 외로움을 알게 되어 가까이 가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화자는 복승아나무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과 복승아나무를 조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짜임

-1연

- 1~6행 : 대상에 대한 편견으로 서로 소통하지 않음
- 7~12행 : 대상과 나의 진정한 관계
- 2연 진정한 관계의 모습, 공존과 사랑의 세계

- 주제 : 복승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31 | 표현상 특징과 효과 파악

정답 : ②

이 시의 중심 소재는 ‘복승아나무’이다. 이 나무를 수식하는 지시 관형사 ‘그’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중심 소재에 초점이 모이도록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습니다’와 같은 아주 높임의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어체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통해 긴박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④ ‘여려 겹의 마음을 가진’,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등에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통해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32 | 시어와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 ④

이 시에는 ‘그 나무’의 외로움이 ‘파우고 싶은 꽃빛’에서 기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파우고 싶은 꽃빛’을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낸 상황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외로움의 주체가 화자가 아니라 대상(나무)이란 점, 그리고 외로움의 극복 상황이 아니라 외로움의 원인이란 점에 유의할 것)

오답 피하기

- ① [A]는 시의 도입부이므로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복승아나무가 지닌 ‘여려 겹의 마음’ 때문에 화자는 그 나무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 ② [B]에는 복승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이 ‘지나쳤을 뿐입니다’와 같은 행동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멀리로 멀리로만’과 같이 부사어를 반복함으로써 대상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C]에는 ‘알았습니다’란 시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대상에 대해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눈부셔’란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발견의 순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C]가 깨달음의 순간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E]는 그 이후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복승아나무를 처음에 ‘여려 겹의 마음을 가’ 졌고, ‘흰 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운 존재로 인식하지만 어느 순간 ‘수천의 빛깔’이 있는 존재이고 ‘외로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복승아나무에서 발견한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3 | 비교 감상

정답 : ⑤

⑦은 화자가 거리감을 두었던 복승아나무가 만들어 낸 그늘이다. 그 그늘 밑에 화자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 느꼈던 거리감이 사라지고 친밀감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⑧는 과거에 자신이 자주 찾았던 밤나무 그늘이다. 필자는 눈을 감아도 ‘그 품속이 생각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⑦은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장소가 아니며, ⑧도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가 아니다.
- ② ⑦은 화자가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게 된 공간 이므로 영향을 받은 장소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⑧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준 장소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밤나무가 필자에게 영향을 준 장소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③ ⑦은 화자가 사색에 잠긴 장소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복승아나무’에 대해 사색에 잠겼던 장소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⑧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해 글을 썼던 장소는 아니다.
- ④ ⑦은 복승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라 할 수 없고, ⑧도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고민이 해소되는 장소라 할 수 없다. ⑧는 ‘밤나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생긴 고민이 해소되는 장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34~38] (현대 소설)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작품 해설】

- **해제** :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조마이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좌절과 저항을 그린 작품이다. 조마이섬 전체가 소수 권력자의 손에 넘어가면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박한 생존의 위기를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은 홍수를 계기로 절정에 달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갈밭새 영감의 행동을 통해 섬사람들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간적 배경이 되는 조마이섬은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로 인하여 황폐한 모래톱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부조리한 사회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줄거리 : 낙동강 하류의 명지면에 살았던 건우라는 소년과 그의 할아버지 갈밭새 영감, 그리고 소년의 젊은 할어머니를 중심으로 이 작품은 전개된다. 화수는 중학교 교사로서 ‘나룻배 통학생’ 건우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된다. 화수는 소년이 살고 있는 섬이 실제 주민과는 무관하게 소유자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쓴 건우의 글을 읽는다. 화수는 어느 날 섬을 방문하게 된다. 건우의 아버지는 일제 때는 징용에 끌려 갔고, 6·25전쟁 때 전사했다.

이 ‘조마이섬’은 일제시대에는 동척의 소유였고, 광복 후에는 나환자 수용소로 변했다. 그것을 반대하는 윤춘삼 영감은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하였다. 그 후 어떤 국회의원이 간척사업을 한답시고 자기 소유로 만들여 버렸다. 논밭은 섬사람들과 무관하게 소유자가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흥수가 범람하게 되자 섬 사람들은 흥수를 피하기 위해 눈가림으로 만들어 놓은 둑을 헐어버리려 한다. 이것을 제지하는 ‘유력자의 앞잡이’가 나타나자 건우의 할아버지는 이 깅패를 물속에 던져버린다. 섬사람을 흥수에서 구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하지만 건우의 할아버지는 ‘법과 유력자’ 때문에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불들려 간다.

• 등장인물

- 나 : 건우의 담임이자 소설가. 이 작품의 관찰자(서술자)이자 고발자 역할을 수행한다.
- 갈밭새 영감 : 건우의 할아버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어민으로서, 유력자들의 횡포에 맞서 조마이섬을 지키려는 의지가 굳은 인물이다.
- 건우 : K 중학교 학생으로 순박하다. 조마이섬에서 나룻배로 통학을 한다.
- 윤춘삼 : 부당한 옥살이를 하기도 하며, 갈밭새 영감과 같이 의로운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 주제 : 소외된 민중들의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34 | 서술상의 특징 파악

서술자 ‘나’는 정갈한 건우의 집을 묘사한 후, 그와 같은 정갈함이 건우 어머니의 성격에 있음을 언급하

정답 : ④

고, 서술자는 그녀의 성품을 호의적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공간적 배경을 서술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권력자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니다.
- ② ‘마루청’, ‘장독대’, ‘장다리꽃’ 등 농촌의 일상적 삶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③ 서술자인 ‘나’가 ‘건우 어머니’를 우호적 입장에서 평가한 것을 논평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성격 변화 양상을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건우 어머니의 과거의 삶을 요약하는 것은 그녀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현재와 과거의 사실의 교차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향후 전재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35 |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 ②

‘일류 중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건우 어머니의 악착같은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자의 교육관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거칠어 있는’이란 구절에서 고된 생활을 감당해왔음을 알 수 있다.
- ③ ‘사과 켜짝 같은 것에 종이를 빌라 쓰는’이란 구절에서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임을 알 수 있다.
- ④ 선거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있는 ‘소감’의 내용을 통해 건우가 정치 현실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둑’을 선조 때부터 만들어 왔고, 그 과정 속에 힘겨운 싸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섬의 내력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6 | 장르 변화의 적절성 파악

정답 : ④

〈보기〉에는 인물 간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인물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인물을 등장시켰

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E.L.S.'가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할 때 사용하는 촬영 기법이기 때문에 조마이섬 지형적 특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 ② 소설에는 서술자의 서술로 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③ '내일은 결판을 낼끼라고'와 같은 대사를 삽입함으로써 이후 벌어질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고 동시에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대명천지에~없는 기다!'란 대사를 #98에서는 건우 증조부가, #99에서는 건우 할아버지가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37 |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정답 : ③

이 글에 따르면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는 건우가 쓴 <섬 얘기>에 몇 가지 일화를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건우의 <섬 얘기>를 읽었고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몇 가지 일화를 더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글에서 저항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은 건우 할아버지와 춘삼이지 건우는 아니다. 따라서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글에 의하면 '나'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 준 조마이섬 이야기에 대해 '얼마나 원한이 컸단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한 '나'의 공감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서술자인 '나'가 서술하는 이야기는 건우가 쓴 <섬 얘기>에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 준 조마이섬 이야기'를 덧붙인 이야기이다. 그런데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섬 얘기>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나'의 이야기, 건우가 쓴 <섬 얘기>,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 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거의 동일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나'의 이야기는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한 의도에서 창조된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인 '나', 건우, 그리고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는 모두 권력에 의해 고통 받은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④ '나'가 서술한 이야기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주된 내용은 권리자에게 땅을 빼앗긴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나'의 이야기는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건우 할아버지가 들려 준 이야기는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권리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8 | 한자성어의 활용

정답 : ①

조마이섬 사람들이 원한이 매우 컸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각골통한(刻骨痛恨)'이 가장 적절하다.

*각골통한(刻骨痛恨) : 뼈에 새기듯이 마음에 깊이 사무쳐 맷한 원한

오답 피하기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마음속으로 애를 쓰며 속을 태움
- ③ 전전반측(轉轉反側) :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어버이가 돌아가시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슬픔을 이르는 말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 이미 잘못된 것을 뒤늦게 뉘우쳐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 2) 이미 잘못된 것을 뒤늦게 뉘우쳐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음.

[39~42] (고전 소설) 작자 마상, '홍부전'

【작품 해설】

• 해제 : 보은(報恩) 설화가 바탕이 된 '홍보기'가 문자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로 단순한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 작품이라기보다는 당대의 퇴락하는 조선 후기 양반가와 서민들의 생활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시대적으로 조선 후기의 신분 변동에 따라 나타난 유랑 농민과 신흥 부농과의 갈등상이 반영되어 있는 점이 이러한 특징을 밝혀 준다. 이 작품은 소설적 구조를 계승하

면서도 인물이나 사건을 그려 나가는 방식은 판소리계 소설답게 서민적이고 해학적인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체상의 특징은 비극적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 **줄거리** : 충청 · 전라 · 경상 삼도의 어름에 악하고 사나운 형 놀부와 순하고 착한 아우 흥부가 살았는데, 놀부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흥부를 내쫓았다. 아내와 많은 자식과 함께 쫓겨난 흥부는 할 수 없이 언덕에 움집을 짓고 살지만 먹을 것이 없었다.

하루는 놀부의 집으로 쌀을 구하러 갔으나 매만 맞고 돌아왔다. 여러 가지 품팔이를 다해 보아도 먹고 살길이 없어 대신 매를 맞아 주는 매풀팔이를 하나 그것도 안 되었다.

어느 해 봄 제비가 돌아와 집을 짓고 사는데 새끼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흥부가 불쌍히 여겨 다리를 매어 주니 고맙다고 날아가 그 이듬해 봄에 돌아올 때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심어 가을에 큰 박을 많이 맺는데 그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큰 부자가 되었다.

놀부가 이 소식을 듣고 제비 새끼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날려 보냈다. 이듬해 봄에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를 심어 많은 박을 맺는데 그 속에서 온갖 몹쓸 것이 나와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흥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부에게 재물을 주어 살게 하고, 그 뒤 놀부도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었으며 형제가 화목하게 살게 되었다.

- **주제** :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勸善懲惡)

39 |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 ③

흥부의 초라하지만 갖추어 차려입은 외양을 세세하게 열거하여 해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0 | 대화 내용의 이해

정답 : ⑤

[C]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놀부를 고발하는 근거는 [B]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이 아니라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의 악행이다.

오답 피하기

- ③ ‘우화적’이란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C]는 제비를 의인화하여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으므로 [C]에서는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은 우화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41 |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정답 : ②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을 몰아내는 놀부의 모습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동지설달’부터 조급하게 제비를 기다리는 모습을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삼월 삼일’에 인위적으로 제비를 자신의 집으로 들이모는 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비에게 주어진 ‘보수표’는 ‘원수를 갚는 박’이라 는 뜻이다.

42 | 독자의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 ④

④은 놀부가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를 치료하는 모습이다. ‘병주고 약준다’는 속담은 해를 입힌 뒤에 달래거나 감싸 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상황에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방귀 편 놈이 성낸다.’는 속담은 자기가 잘못하고 서 오히려 남에게 성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43~45] (고전 시가) (가) 이정보의 시조, (나) 이조년의 시조, (다) 최치원, ‘촉구화(蜀葵花)’

【작품 해설】

(가) 이정보의 시조

- **해제** : 이 작품은 선비가 지켜야 할 강직한 지조와 절개를 사군자(四君子)의 하나인 국화의 미덕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봄에 꽃을 피우는 일반적인 꽃들과 달리, 국화는 추운 가을날에 서릿발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운다. 시적 화자는 이러한 국화의 생태적 특징이 시련에 굽하지 않는 선비의 모습과 닮았다 하여 국화를 오상고 절(傲霜孤節)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 짜임

- 초장, 중장 : 국화의 생태적 특징
- 종장 : 국화의 높은 절개

• 현대어 풀이

국화야, 너는 어찌해서 따뜻한 봄철 다 지나가고

<p>나뭇잎이 떨어지는 추운 날에 너 혼자 피었느냐 아마도 서릿발을 이겨 내는 외로운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p>	<p>지를 부끄러워하면서도 견디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물의 생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주제를 이끌어 냄 - '국화'를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함 - 의인법, 비유를 통한 우의적 비판 - 국화에 작가 자신을 비유해 자신의 신념을 드러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연 : 척박한 곳에 피어 있는 접시꽃 - 3~4연 : 화자의 완숙한 학문적 경지 - 5~6연 :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 - 7~8연 :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풍토 한탄
<p>(나) 이조년의 시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 : 이 작품은 고려 시조 중에서 서정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고려 25대 충렬왕의 계승 문제로 당론이 분열되었을 때 이조년이 귀양살이를 하던 중, 임금에 대한 걱정과 유배지에서의 은둔 생활의 애상을 노래하고 있다. '배꽃'과 '달빛', '소쩍새'의 이미지를 통하여 봄밤의 애상과 우수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p>•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처지와 주변 인물을 자연물에 빗대어 나타냄 -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장 : 밝은 달 아래 배꽃이 하얗게 피어 있는 정경 제시 - 중장 : 소쩍새 울음 소리가 들리는 봄날 밤의 분위기 제시 - 종장 : 봄밤의 애상과 우수에 잠겨 잠을 못 이루는 심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탄
<p>• 현대어 풀이</p> <p>배꽃이 하얗게 피어난 가지에 밝은 달이 비치니 꽃은 더욱 하얗게 보이고, 은하수가 자정 무렵을 가리키는 한밤중에 이 배꽃 가지에 서려 있는 봄날의 정서를 어찌 소쩍새 따위가 알리마는 이렇듯 다정다감함은 무슨 병과도 같아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p>	<p>43 표현상 공통점 파악</p> <p>정답 : ③</p> <p>(가)는 '삼월 동풍', '낙목한천'을 통해, (나)는 '이화', '일지춘심'을 통해, (다)는 '매우', '맥풍'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p> <p>오답 피하기</p> <p>① (가)~(다) 모두 대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p> <p>⑤ (가)~(다) 모두 화자의 단호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 '월백', '은한' 등 백색의 이미지로 정감을 형성 함 	<p>44 시어와 시구의 의미 파악</p> <p>정답 : ③</p> <p>(가)는 국화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고, (나)는 봄밤에 느끼는 애상감을 노래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화자가 대상과 이별한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p> <p>오답 피하기</p> <p>② (나)에서 화자는 '이화'에서 애상감을 느끼며, 이 정서는 자규의 울음소리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봄밤의 애상적 정서 	<p>45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p> <p>정답 : ②</p> <p>[B]에서 '희미해지고', '기우뚱하네'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p> <p>오답 피하기</p> <p>① '황량한 빙'은 꽃이 자라고 있는 곳으로 화자의 출신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탐스러운 꽃'은 능력을 지닌 화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p>
<p>(나) 최치원, '촉구화(蜀葵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 : 자신을 촉구화(접시꽃)에 빗대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 현실에 대해 깊은 비탄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탐스러운 꽃송이를 피워 내어도 아무도 보지 않고 별이나 나비들만 부질없이 옆보는 쓸쓸한 처 	

③ ‘수레나 말 탄 사람’은 임금과 귀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벌이나 나비’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A]의 황량한 밭에 피어 있는 촉구화는 화자 자신의 모습이고, [D]는 ‘부끄럽고’, ‘한스럽네’를 통해 화자 자신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종로 합격예측 서비스

‘6월 모평’으로 보는 합격 가능성!

6월 14일(토) OPEN 무료제공

빠르고 편리한 맞춤검색

- 유리한 대학 · 학과순으로 리스트업!
- 전형요소/서·연·고/의·치·한/대학별/
(유사)학과별 빠르고 편리한 맞춤 검색 가능

성적 분석 및 지원전략

- 영역별 분석, 영역조합별 분석
- 각 영역 환산점수별 유불리 분석
- 내 성적으로 가능한 대학 정보제공

정밀한 결과 분석

- 대학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준치 반영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번에 비교

| 회원가입문의 02 319 3199 | 종로학원 ▾ 검색



국어 영역(B형)

분석 및 해설

정답

01 ④	02 ⑤	03 ①	04 ⑤	05 ⑤	06 ②	07 ④	08 ④	09 ④	10 ①
11 ②	12 ③	13 ⑤	14 ②	15 ①	16 ①	17 ④	18 ①	19 ④	20 ⑤
21 ④	22 ①	23 ⑤	24 ③	25 ⑤	26 ③	27 ①	28 ④	29 ④	30 ①
31 ③	32 ②	33 ②	34 ④	35 ②	36 ④	37 ③	38 ①	39 ④	40 ⑤
41 ⑤	42 ②	43 ③	44 ④	45 ③					

출제 문항 분석

문항	난이도	제재	출제 의도
1	하	화법	면접 양상 파악
2	하	화법	발화의 평가
3	중	화법	피면접자 사고 추리
4	하	화법	발표의 평가
5	중	화법	듣기 전략의 이해
6	하	작문	글쓰기 계획 및 내용 생성
7	하	작문	자료를 이용한 내용 생성
8	하	작문	결론 내용 추론
9	하	작문	작문의 특성 파악
10	하	작문	조건에 맞추어 쓰기
11	중	문법	한글 맞춤법
12	하	문법	문장 수정의 적절성 평가
13	상	문법	로마자 표기법
14	중	문법	호칭어와 지칭어
15	중	문법	띄어쓰기
16	중	문법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17	중	예술	내용 전개 방식
18	상	예술	내용의 사실적 이해
19	상	예술	내용의 사실적 이해
20	하	예술	외부 정보와의 비교
21	중	인문	내용의 추론적 이해
22	하	인문	사례 적용 및 해석
23	상	인문	내용의 추론적 이해
24	중	인문	여러 바꾸어 쓰기
25	하	과학	내용의 추론적 이해
26	중	과학	사례 적용 및 추론
27	중	사회	표제와 부제
28	중	사회	내용의 추론적 이해

문항	난이도	제재	출제 의도
29	상	사회	내용의 사실적 이해
30	중	사회	외부 정보를 활용한 이해
31	하	현대시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32	하	현대시	시구의 의미 파악
33	중	현대시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34	중	현대 소설	서술상의 특징 파악
35	하	현대 소설	소재의 의미 파악
36	하	현대 소설	장르 변환의 적절성 파악
37	하	현대 소설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38	하	현대 소설	한자 성어
39	하	고전 소설	서사 내용의 파악
40	중	고전 소설	사건의 의미 파악
41	중	고전 소설	인물의 대화 내용 파악
42	하	고전 소설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43	중	고전 시가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
44	중	고전 시가	시어에 대한 이해
45	중	고전 시가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

출제 경향

❖ 화법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난해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면접과 발표 두 가지 제재로 출제 되었다. 3번 문제에서 면접 상황에서 유의할 점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를 지문과 연계하여 출제한 것이 독특했다. 특히 면접자의 입장에서 직접 답변을 생각해 보게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또 5번으로 출제된 듣기 전략의 경우 자칫 말하기에만 치중될 여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이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시된 제재들은 EBS 독해 지문을 활용하기도 했던 기준 방식과는 달리 전문적인 내용이나 어려운 용어들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빈언어적 표현’, ‘담화 표지’ 등 화법에서만 출제될 수 있는 개념들이 활용된 선택지가 출제되어 화법에 관한 지식적 측면도 평가하려는 의도가 뚜렷이 보였다.

❖ 작문

작문 영역에서는 자료의 활용, 작문 상황을 고려한 내용 결론 추론, 글쓰기 방식의 이해 등을 출제하였다. 10번과 같이 표현과 내용을 동시에 고려한 내용 생성은 기준에도 출제되었지만, 8번과 같이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적 맥락에서만 글의 내용을 생성 혹은 추론시킨 유형은 독특해 보인다. 6번처럼 글 감이나 글의 종류에 따른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작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려는 의도도 엿보였다. 작년에 출제된 문제들이 기존 작문 유형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좀 더 작문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 요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문제 풀이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었겠지만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었다.

❖ 문법

작년 문법 문제들은 문법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많이 요구하지 않고 <보기>로 제시하거나 추론하게 하였는데, 이번에는 문법 용어나 지식을 <보기>로 제시하는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 중세 국어에 대해서는 <보기>로 상세히 문법적 지식을 제시하였는데, 중세

국어에 대해서는 지식적 측면 보다는 현대 국어의 문법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도만 묻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 호칭어와 지칭어, 정확한 문장 표현, 음운 현상과 표기법 등 교과 과정 상 분류된 문법 전 부분에서 골고루 출제하려는 경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로마자 표기법은 표기된 것을 보고 표기법을 추론하는 수준으로 출제됐다.

❖ 독서

• 예술

A, B형 공통 출제 지문으로 EBS 인터넷 수능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하지만 실제 연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EBS 교재에 수록된 지문에서는 영화의 연출 기법 중 하나로 ‘맥거핀’이 소개되었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작가주의적 비평가에 의해 재평가된 할리우드 영화 감독 히치콕의 개성적 연출 기법으로 살짝 언급되었다. 즉, ‘맥거핀’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지만 글의 중심 내용은 완전히 상이해 지문의 연계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 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난이도도 평이했다.

• 인문

EBS 인터넷 수능 13강(P. 209)에서 화제를 가져와 구성한 지문이다. 하지만 글의 구조 및 세부 내용은 전반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지문이기 때문에 EBS에 대한 선형 학습 자체로서 얻는 체감 연계율은 크지 않았고 논리 철학적 이해에 대한 글을 꾸준히 학습한 수험생에게 유리한 글로 볼 수 있고 문항 역시 지문의 구성과 내용을 확인 차원이 아닌 이해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 과학

EBS 인터넷 수능 10강(P. 184)의 제재를 활용하여 구성한 지문이다. 최근의 과학 지문 세트가 B형 독서 영역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구성을 보였던 추세가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EBS 교재의 물리 · 화학 · 생명과학 · 지구과학을 막론하고 화제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든 지문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지문과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물론 그에 따라 독해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문항 수는 2문항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난 해 6월 9월 수능에 이어 연속해서 2문항이 출제되는 것으로 하나의 경향이라 보인다.

• 사회

EBS 수능 특강 실전 2회(P. 216)에서 일부 다루어진 제재를 이용하여 구성된 글이다. 이번 독서 제시문 중에서 그 연계 내용이 가장 미약한 지문이었다는 점에서는 EBS 선행 학습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글의 성격과 화제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라 독해 과정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역시 표제·부제를 중심으로 글의 핵심 정보를 묻는 문항과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무난한 구성의 지문과 문항이라 보인다.

❖ 문학

• 현대시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현대시 두 작품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김광균의 ‘와사등’은 EBS 수능특강에 수록된 작품이므로, 수험생들이 익숙하여 감상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출제된 문항 유형으로는 작품들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와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는 시를 감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점검하는 기준의 수능의 출제 방향과 유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 현대 소설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는 수능 특강 A형, B형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작품이다. 평이한 내용이므로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 판단된다. 부분적인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 어휘의 이

해, 장르 전환 시 고려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외적 준거를 활용한 감상, 문맥적 의미에 맞는 한자 숙어 찾기 등이 출제 되었다. 37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 문제는 평이했다.

• 고전 소설

‘임경업전’이 출제되었다. 이 작품은 EBS 인터넷 수능에서 연계 출제되었다. 임경업전의 경우 익숙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을 알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았을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외적 준거를 통해 감상하는 문제의 경우가 상당히 까다로웠고, 학생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의주 백성과 청중을 구분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답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 고전 시가

과거 수능에 출제되었던 ‘도산십이곡’이 다시 출제되었다. 고전 시가는 문학사적으로 중요하고 가치를 널리 인정받는 작품이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다. 특히 점은 현대어로 풀이하여 제시하지 않고 한자어와 고어를 원문에 가깝게 출제하여 학생들이 독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산십이곡’을 현대 한국어로 바꾸어 독해할 수 있는 학생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특히 44번 문제에서 ‘교교백구’가 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독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 화법

화법은 출제 경향 상 교육 과정 상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출제하려는 경향이 같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내용을 몰라도 출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지만, 화법 특유의 내용이나 개념어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 작문

작문 유형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함정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만들기보다는 제시된 자료나 정보 등을 차분히 읽어 낼 수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출제되고 있다. 작문 교육 과정 상의 내용을 좀 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보이므로 글의 종류나 글쓰기 목적 등에 따른 글쓰기 전략에 해당하는 교과 내용을 학습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EBS 교재의 지문이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의 경우를 참고할 때 수능에서는 EBS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EBS 교재의 소재나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 문법

문법은 문법 전 영역을 골고루 출제하는 경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교과 과정 자체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법 용어나 현상,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야한다. 음운 변화나 품사, 문장 성분이나 짜임 등의 문법 내용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바람직한 국어생활이나 중세 국어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공부가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고 있고,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지만 문법적 지식에 대한 선이해는 필수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독서

• 예술

예술 지문에서는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심지어 건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장르를 설명하기보다는 미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예술 장르로 바라보는 지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각 장르의 배경지식 파악보다는 지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미학적 관점의 파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글에서 제시된 관점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론적인 글의 경우에는 개념들에 주의를 하고, 작가나 작품에 대한 설명인 경우에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인문

EBS 교재의 인문 지문의 제재를 가져 오긴 했지만 글의 성격이나 내용은 더욱 깊이 있게 구성되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EBS 교재에 대한 파상적인 선행 학습만으로는 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이해를 얻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후 수능 시험 까지 EBS 교재의 화제와 관련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찾아 읽기가 요구되며 반드시 기출 지문의 성격을 토대로 이해를 도모하는 글 읽기 연습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과학

EBS 교재에서 다루어진 화제라면 그 지문의 내용에 국한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 과학적 원리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해 가며 학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글 읽는 습관부터 과학 지문은 천천히 숙독하며 지문의 정보와 그 정보간의 관계와 그 속에서 이해되는 과정이나 원리를 차분히 정리해 가며 읽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 문항은 2문항으로 구성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 글 읽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 사회

EBS 교재의 사회 지문의 제재들 중 익숙한 것들이라도 수능에서 화제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며 낯설지 않게 이해해 두는 학습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기출 문항들 중에 EBS 교재의 제재가 다루어진 지문 세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파악해 가며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가늠해 가며 학습해야 할 것이다.

❖ 문학

• 현대시

지난 대수능에서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중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EBS 교재에 수록,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EBS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도 이러한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감상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EBS에 수록되지 않은 생소한 시 한 편을 출제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시라고 하더라도 시 독해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

출제 경향을 보면 작품들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와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시를 독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갖출과 동시에 선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능과 평가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을 주의 깊게 보고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이 타당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출 문제를 통해 작품의 구체적 내용과 선지의 개념을 연결하여 연결의 타당성이 적절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 현대 소설

소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때 전체적인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분적인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서술자가 그와 같은 서술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적 준거를 활용한 감상 문제는 유형적으로 접근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 접근법에 대한 이해와 연습을 해야 한다.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문제는 작품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유형을 연습할 때, 선택지가 과연 작품 내용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 고전 소설

EBS 교재와의 연계가 높은 장르이다. 그러므로 EBS 교재의 출제 작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인물의 특성과 인물들 간의 관계를 위주로 주요 사건을 정리하고 사건의 의미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줄거리와 중요한 사건, 소재와 배경의 의미와 기능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낯선 소설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설의 독해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시된 작품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인물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가운데,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익히고 자주 나오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 연습을 병행해 나간다면 고전 소설에서 그리 어려움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 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되는 즉 정전(正典)으로 인정받은 작품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고전소설 영역은 일단 익숙한 작품일수록 확실하게 이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고전 시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도산십이곡’이 출제되었다. 이런 출제 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 출제되었던 수능 평가원 문제를 꼼꼼히 공부하면서 이미 출제된 필수 작품들에 대해 철저히 학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B형의 경우 현대어로 충분히 번역되지 않고 출제되므로, 원문에 대한 자기 독해가 가능하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시상 전개의 구조 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특히 시구를 정확하게 해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해설

[01~05] (화법)

01 | 면접 양상 파악

정답 : ④

피면접자의 첫 발언에서 ‘그림을 그리고 ~ 물으신 거죠?’는 상대방의 질문을 다시 확인한 것은 맞지만, 앞서 발언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데요?’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자주 질문 받은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되물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면접자의 두 번째 발언에 있는 ‘진로에 대해 명확한 ~’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 ② 면접자의 두 번째 발언에 있는 ‘학생의 답변을 들으니 ~ 건가요?’라는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 ③ 면접자의 첫 번째 발언에 있는 ‘이 말은 학생이 ~ 보세요.’라는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 ⑤ 피면접자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발언에서 ‘약간 높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힘을 주어’ 같은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 발화의 평가

정답 : ⑤

⑦의 질문은, 앞선 발언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을 바탕으로 그 의도를 추리해 볼 때 ④번처럼 ‘준비 정도’를 물은 것이지, ‘지원 동기’를 물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 ① ‘학생의 글’을 미리 읽고 질문한 것임을 면접자의 첫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③ 선생님의 두 번째 발언에서 ‘학과 지원 동기’를 과제로 미리 제시하였고, ⑦은 ‘학생의 글’에서 확인 못했던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④ ⑦은 ‘그를 위해 ~ 궁금합니다.’라는 발언에 이어지는 것으로, ‘문예 창작과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발언이다.

03 | 피면접자 사고 추리

정답 : ①

“표현 수단의 ‘차이’를 ‘설명’하라는 부분에 주목해 보면, ‘설명’은 사실을 서술하는 대표적인 방식이고 ‘차이’를 서술하는 방식은 대비나 대조로 보아야 한다. ①은 글과 그림이라는 표현 수단으로서의 ‘매체’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답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표현 수단의 차이를 물은 것이지, ‘표현 수단에 따른 내용의 차이’를 물은 것은 아니다.
- ③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였는데, 두 그림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⑤ 면접자의 요구가 ‘차이의 설명’이므로 의견을 물은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 발표의 평가

정답 : 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지도 않았고 토론, 전, 중, 후에 독서 토론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지도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글의 첫째 문단에서 “결과가 궁금하시죠?”라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했다.
- ② “설문 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 동아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서 토론 노트 사용을 제안한다고 하여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을 밝혔다.
- ③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토론 노트 사용이라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것을 사용하면 책을 읽어 오지 않는 학생들 및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토론을 방해하는 학생들도 줄어들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④ 담화 표지란 담화 표지란 대화에서 내용의 예고, 강조, 요약, 예시, 열거 등의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집중, 내용 구별, 내용 정리, 기억 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글에서도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첫째”, “둘째”, “셋째” 등의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05 | 듣기 전략의 이해

정답 : ⑤

학생5는 발표자 말에 공감하여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겠다고 말했을 뿐, 발표자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들은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③ 학생3은 발표자가 앞에서 제시한 설문 조사가 참여율이 낮았음을 언급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듣고 있다.
- ④ 학생4는 발표자의 가치 판단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공정성을 판단하며 듣고 있다.

[06~10] (작문)

06 | 글쓰기 계획 및 내용 생성

정답 : ②

관점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동일한 관점의 자료, 즉 한 가지 관점을 지닌 자료만 수집하여 활용할 경우 관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선생님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 ① 선생님의 유의 사항에서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으므로 ‘비전문가 독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다.
- ③ ‘관련 개념의 명확한 사용’을 과제에서 강조하였으므로 적절한 과제 수행 방안이다.
- ④ 내용의 참신성과 반론을 고려한 논거는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적절한 방안이다.
- ⑤ 선생님의 유의 사항에서 거의 그대로 모두 언급된 내용이다.

07 | 자료를 이용한 내용 생성

정답 : ④

④은 경제적 안정이 고령자 근로의 주된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사회 참여 수단으로서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인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④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④ 선택지는 이런 취지를 정반대로 파악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보기 1>에 나와 있는 ‘수립한 논지의 방향’에 잘

어울리는 내용이다.

- ② (나)의 ‘사회참여로 인한 ~ 증진되고’ 부분은 개인적 차원의 필요성을, ‘부양비, 의료비 ~ 불러올 수 있죠.’ 부분은 사회적 차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 방안이다.
- ③ 민간 분야는 아직 11.7%로 미미한 상태이고, 오히려 공공 분야가 압도적이므로 불균형을 언급하는 방식은 적절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는 민간 분야 활성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나)의 부진 원인으로 제시된 세 가지가 차례로 ‘예산’, ‘전담 인력 부족’, ‘광고와 홍보의 필요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적절한 활용 방안으로 볼 수 있다.

08 | 결론 내용 추론

정답 : ④

주된 논의의 초점이 ‘노인 일자리 확충’이므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논의 초점이 각각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과 효’ 등으로 작문 상황의 초점과 맞지 않는다.
- ③ ‘노인’ 문제가 표면화 되어 있지 않고, ‘계층별 소득 격차’는 논의 범위 밖의 문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세대 간 갈등과 화합’ 역시 논의 범위 밖의 문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9 | 작문의 특성 파악

정답 : ④

(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글을 구성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에서 그 계획에 따라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10 | 조건에 맞추어 쓰기

정답 : ①

- ④에 의하면 (나)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은 잡상의 가치를 제시한 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며 끝맺어야 하며, 표현은 직유법을 활용해야 한다. ①은 “잡상은 길가의 들꽃처럼”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였고, “궁궐의 안녕을 기원하는 선조들의 마음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잡상의 가치를 제시했으며, “이런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

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끝맺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 ③, ④, 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글을 끝맺지 않았고, ④와 ⑤는 직유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④는 잡상의 가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궁궐과 잡상이 조화의 정신을 보여 주는 문화유산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16] (문법)

11 | 한글 맞춤법

정답 : ②

⑦과 같은 예로 적절한 예는 ‘높이다’를 ‘노피다’로 잘못 적는 경우이다. ‘높이다’를 ‘높하다’로 잘못 적는 경우는 ⑦과 같은 예가 아니라 접미사 ‘이’, ‘하’를 혼동한 예이다.

오답피하기

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 할 때 앞말의 끝소리를 뒷말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을 연음이라고 한다. ‘들어서다’를 ‘드러서다’로 적은 것은 연음 현상으로 인한 표기 혼동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④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 ‘ㅋ, ㅌ, ㅍ, ㅊ’으로 줄어 발음되는 현상을 자음 축약 중 ‘거센소리 되기’라고 한다. ‘그렇지’가 [그러치]로 발음되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예가 맞으며, ‘얽혀’ 역시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거센소리 되기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⑤ ⑦은 ‘ㄷ, ㅌ’이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 현상에 의해 표기를 혼동한 것이다. ‘금붙이’ 역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만족하므로 같은 사례라 볼 수 있다.

12 | 문장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 : ③

‘기대기도 한다.’와 호응하는 부사어가 부족하므로 이와 호응하는 부사어를 적절히 넣어주어야 한다. ‘사람을’과 호응한다고 칙각하기 쉬운데 이는 목적 어이므로 ‘기대기도 한다.’와 호응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람에게’를 넣어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피하기

- ① 수정한 문장에서 주어 ‘사람들은’과 ‘경향인 것 이다’는 여전히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향이 있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야구나 공을 찬다.’라는 표현에서 ‘야구’는 찰 수 없으므로 어색하다. 수정한 문장에서는 ‘공’과 ‘하다’가 여전히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을 차거나 야구를 한다.’는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이 문장의 중의성은 ‘사람을 좋아하는’의 수식을 받는 말이 ‘친구’인지 ‘친구의 고양이’인지가 모호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는 수정한 문장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와 같이 쉼표를 찍어 주면 ‘사람을 좋아하는’이 고양이를 수식하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중의성은 해소된다.
- ⑤ 서술어 ‘직시하다’는 ‘～을’과 호응하는 타동사다. 따라서 ‘현실에’를 ‘현실을’로 수정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13 | 로마자 표기법

정답 : ⑤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이 ‘ݣ, ڏ, ڻ, ڻ’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는 것인데, ‘앞접’의 ‘접’이 ‘찝’으로 소리 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찌’을 〈보기〉에서는 ‘j’로 표기하였고, ‘장롱’의 ‘ㅈ’ 역시 ‘j’로 표기된 것을 보면 된소리되기로 인해 발음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ㄱ’은 ‘g’, ‘k’ 두 가지 방식으로 적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받침 ‘ㅂ’과 ‘ㅍ’은 모두 로마자 ‘p’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장롱을 로마자로 표기한 곳에서 장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부호는 찾을 수 없다.
- ④ ‘ㅁ, ㅇ’ 뒤에 ‘ㄹ’이 올 경우 ‘ㄴ’으로 발음하는 것을 ‘비음화’라고 하고 이는 자음동화의 한 유형이다. ‘기락’의 로마자 표기를 참고할 때 ‘ㄹ’은 ‘r’인데 ‘n’으로 적은 것을 보면 이런 자음 동화를 반영하여 로마자로 표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 호칭어와 지칭어

정답 : ②

㉠, ㉡, ㉢은 모두 은미 입장에서 고모부에 해당하고, ㉣, ㉤은 은미 입장에서 고모에 해당하는 호칭이나 지칭어들이다. 그 중 ㉤은 화자 기준의 지칭이 아니라 은미, 즉 청자 기준으로 지칭한 표현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 ㉡은 화자나 청자가 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칭 대상이 바뀌어 동일한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도 바뀐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할머니와 고모가 각각 화자에서 청자로, 청자에서 화자로 바뀌면서 고모부를 지칭하는 말이 바뀌었다.
- ③ ㉠의 화자는 할머니, 청자는 고모, ㉢의 화자는 고모, 청자는 ‘은미’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고모이고, 청자는 각각 할머니, ‘은미’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 ⑤ ㉣의 화자는 엄마, ㉤의 화자는 ‘은미’이므로 각각 청자인 고모를 부르는 호칭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15 | 띠어쓰기

정답 : ①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 것은 단어라고 했고, 단어와 단어는 띠어 쓴다고 했으므로 ㉠ ‘살아가다’는 붙여 쓴다.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 + 본용언’ 구성이라고 했고 본용언은 한 단어이므로 ㉡ ‘받아 가다’는 띠어 쓴다. 반대로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없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라고 했으므로 ㉤이 그 중 전자라면 ‘닮아 가다’로 쓸 수 있고 후자라면 ‘닮아 가다’로 쓸 수 있다.

16 |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정답 : ①

‘아들’은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아들’의 ‘ㅅ’은 양성모음이므로 ‘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술위’는 ‘수레’라는 말로 사람도 동물도 아니므로 ‘ㅅ’을 사용해야 한다.

[17~20] (예술)

【지문 해설】

• **해제** : 이 글은 영화 비평 이론으로서 등장한 작가주의의 개념과 그것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작가주의는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창된 비평 이론으로 작품과 작기를 동일 시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작가주의는 할리우드 영화를 재평가했고 오늘날에도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 **주제** : 작가주의의 개념과 의의

17 | 내용 전개 방식

정답 : ④

이 글은 영화 비평계의 작가주의란 개념을 설명하고 할리우드 영화의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18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①

매거핀은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극적 장치로, 히치콕의 영화에서 관객들이 확실한 단서로 인식했다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혹감을 느끼게 만드는 소품 등을 말한다.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피하기**

- ② 마지막 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③ 첫째 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④ 셋째 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⑤ 셋째 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19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④

넷째 문단에서 ‘작가주의 비평가들(⑥)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⑧)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으므로 ⑥는 ⑧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 | 외부 정보와의 비교

정답 : ⑤

㉠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반면 ㉡은

영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감독 역시 영화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 ㉠에 비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 보다 중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다.

[21~24] (인문)

【지문 해설】

- **해제** : 이 글은 명제의 참의 의미를 밝히는 방법의 하나인 정합설을 화제로 삼고 있다. ‘정합적이다’는 의미를 크게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설명적 연관’의 개념을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다.
- **주제** : ‘정합적이다’의 의미

21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④

이 글의 둘째 문단의 후반부에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과 넷째 문단의 후반부에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는 내용을 통해 ④를 판단하면,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 있다는 설명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로 고쳐야 하며,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는 설명도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첫째 문단의 처음부터 다섯 번째 문장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셋째 문단의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다섯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 사례 적용 및 해석

정답 :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는 명제와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

이므로 모순이다.

오답 피하기

- ③ 이익과 손해는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이 될 수(손익이 없는 경우)는 있으므로 모순이 아니다.

23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⑤

넷째 문단의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것을 설명적 연관이라 했으므로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는 명제는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라는 명제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또한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는 내용을 통해 함축 관계라는 점을 통해서도 틀린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두 명제 사이에 모순은 없으므로 참인 명제가 된다.
- ② 동네 전체가 정전된 것은 우리 집이 정전된 것을 반드시 참이 되게 하므로 참인 명제가 된다.
- ③ 동네 전체가 정전된 것을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참인 명제가 된다.
- ④ 동네 전체가 정전된 것이 참이라고 해서 동네에 솔숲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함축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24 | 어휘 바꾸어 쓰기

정답 :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의 문맥에서 ‘해결하기’는 ‘밝혀내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문맥에 어울리는 순우리말 어휘로는 ‘풀기’나 다른 한자어로는 ‘처리하기’ 정도가 있겠다.

[25~26] (과학)

【지문 해설】

• 해제 : 이 글은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등급을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 개념이고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 개념이고 이것은 광도가 클수록 작은 수로 표기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등급의 차를 이용해서 구한 거리 지수를 통해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 주제 : 별의 밝기와 별의 거리

25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⑤

첫째 문단에서 겉보기 등급은 한 등급 간의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난다고 했으므로 겉보기 등급이 -1 과 1 인 별의 밝기 차이는 두 등급 차이로서 약 $6.25(2.5^2 \cdot 2.5)$ 배 차이가 난다.

오답 피하기

- ① 둘째 문단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첫째 문단의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셋째 문단의 첫 문장과 넷째 문단의 둘째 문장을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④ 넷째 문단의 둘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6 | 사례 적용 및 추론

정답 : ③

둘째 문단에서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다.’는 내용과 셋째 문단에서 ‘실제 밝기는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된다.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 B와 A의 반지름은 A가 10배 크고 표면 온도는 B가 10배 크므로 광도는 B가 약 100배 밝다. 이것은 절대 등급의 차이를 통해서 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A가 -1 이고 B가 -6.8 이므로 두 별은 절대 등급이 5등급 차이가 나므로 첫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약 100배 차이가 난다고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A는 B보다 절대 등급이 큰 수로 나타나 있으므로 광도 값이 더 작다.
- ② ‘리겔’의 절대 등급은 -6.8 이고 A는 -1 이므로 리겔이 더 밝은 별이다.

- ④ 북극성의 거리 지수가 5.6이고 B의 거리 지수는 7이므로 거리지수가 더 큰 B별이 더 멀다.
- ⑤ 북극성의 겉보기 밝기는 2등급이고 B의 겉보기 밝기는 1등급이므로 B가 더 밝게 보인다.

[27~30] (사회)

【자문 해설】

• 해제 : 이 글은 상업 광고의 폐해 가능성을 규제해야 하는 배경을 서술하고 그에 따른 규제 유형을 구분하며 각각의 유형에 따른 규제의 주체를 밝히며 그 특징과 의의를 서술하는 글이다. 규제의 배경과 관련하여 광고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해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과 기업 책임 부담 원칙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어서 규제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주제 :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

27 | 표제와 부제

정답 : ①

첫째 문단부터 셋째 문단까지 광고 규제의 배경을 서술하고 있고 넷째 문단과 다섯째 문단에서 그 유형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표제의 내용은 부제와 관련해서 둘째 · 셋째 문단은 피해 책임의 주체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셋째 · 넷째 문단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광고 규제의 사회적 영향은 첫째 문단의 부분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의의 역시 첫째 문단의 부분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광고 규제의 순기능 역시 첫째 문단의 부분 내용이고 역기능은 서술되지 않았다.
- ⑤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은 나타나지 않았다. 광고 규제의 피해 책임 주체와 규제 주체를 구분하고 있는 글이다.

28 | 내용의 추론적 이해

정답 : ④

셋째 문단에서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내용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다섯째 문단에서 자율 규제와 법적 규제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서술은 한쪽의 규제가 다른 쪽 규제 방식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되면 법적 규제의 역할은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 ②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은 강해진다.
- ③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각되었고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약화되었다.
- ⑤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29 |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 ④

- ㉡ ‘기업 책임 부담 원칙’보다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을 따를 때 소비자가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넷째 문단에서 정부는 법적 규제의 주체로서 기업의 불공정 광고를 규제할 뿐이다.

30 | 외부 정보를 활용한 이해

정답 : ①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부담 원칙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 부담 원칙은 소비자들이 광고의 허위성을 입증 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힘든 시기의 원칙이었다. 따라서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할 가능성성이 크다.

오답피하기

- ② <보기>의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며’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자율 규제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소비자 규제의 주체인 소비자와 긴장하는 관계가 된다.
- ⑤ <보기>의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는 내용과 ‘소비자의 권리 행사는 소비자 보호 운동의 형태로 나타

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33] (현대시) (가) 김광균, ‘와사등’, (나) 박용래, ‘울타리 밖’

【작품 해설】

(가) 김광균, ‘와사등’

• 해제 : 아무 것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디론가 떠나야만 하는 현대인의 고독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비정한 현대의 도시 문명 속에서 방향 의식을 상실한 지식인의 고독한 목소리가 시각적 측면에서 심상 등을 통하여 나타나 있다. 1연과 5연이 수미상관을 이루며 현대의 물질문명 속에서 소외와 단절을 느끼는 시적 화자의 우울감이 잘 드러난다.

• 짜임

- 1연 : 현대인의 방향 감각 상실
- 2연 : 황혼녘의 음산한 도시 모습
- 3연 : 도시의 삶에서 느끼는 비애
- 4연 : 군중속의 고독에서 느끼는 비애
- 5연 : 현대 문명 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모습

• 주제 :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

• 작가 소개

1914년 1월 19일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하였다. 송도 상고를 졸업하였다. ‘중앙일보’에 시 ‘가는 누님’(1926)을 발표한 뒤 ‘동아일보’에 시 ‘병’(1929) ‘야경차(夜警車)’(1930) 등을 발표했으며, ‘시인부록’(1936) 동인, ‘자오선(子午線)’(1937) 동인으로 활동했다. T.E. 흄, E. 파운드, T.S. 엘리엇 등 영국 주지주의 시운동을 도입 소개한 김기림(金起林)의 이론과 시작에 영향을 받고 “시는 회화(繪畫)다”라는 모더니즘의 시론을 실천했다.

도시적 소재와 공감각적(共感覺的) 이미지를 즐겨 사용했으며, 이미지의 공간적인 조형(造形)을 시도한 점 등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시집으로 ‘와사등’(1939), ‘기항지(寄港地)’(1947)가 있다. 6·25전쟁 후에는 실업계에 투신, 문단과는 거의 인연을 끊었으며, 제2시집 이후 10여 년 만에 문단 고별 시집 ‘황혼기’(1969)를 출간 했다.

(나) 박용래, ‘울타리 밖’

• 해제 : 이 작품은 고향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에게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는 고향은,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고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

을'이며,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곳은 긍정적인 지표로 가득 찬 곳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곧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며 순수한 삶에 대한 동경이며 평화로운 삶에 대한 갈망인 것이다.

• 짜임

- 1연 : 사랑스러운 들길의 모습
- 2연 : 시골 마을의 모습
- 3연 : 대상의 상태 강조
- 4연 : 자연과 함께하는 마을

• 작가 소개

충남 부여(扶餘) 출생. 강경상업(江景商業)을 졸업하고 은행원·중고교 교사 등을 역임하였다. 1955년 시 '가을의 노래', 1956년 '황토(黃土) 길', '땅' 등이 '현대 문학'에 추천되어 데뷔하였다. 그 후 '엉겅퀴', '코스모스', '소묘(素描)', '저녁 눈'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여 1969년에 현대시학사(現代詩學社) 제1회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향토적인 정서를 시적 여과를 통해 간결하고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한국 현대시의 한 갈래를 형성하였다. 시집 '씨락눈', '백발의 꽃대궁'과 공동시집 '청와집(青蛙集)', 시선집 '강아지풀' 등이 있다

• 주제 : 고향에 대한 그리움

31 |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 ③

(가)에서 '묘석같이', '잡초인 양' 등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 문명'의 공간에 대한 화자의 '상실감과 소외감'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아자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등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마을이라는 공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⑤ (가)에서 '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었지만, (나)에서는 화자가 작품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32 |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 ②

어둠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피부에 스민다는 촉각적 이미지로 바꾸었으므로,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어둠이 피부에 스민다는 표현은

33번의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하여 보면 현대 문명에 대해 느끼는 화자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보여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힌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③ '길게'를 '길-게'라고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장음으로 만든 이유는 화자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길게 느껴진다는 인식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이 호응하고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33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 ②

(가)에서 화자가 도시를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 이를 '도시의 황폐함'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 없다.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순환하는 것이나, 새벽 아침 낮 저녁 밤의 하루의 시간이 순환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 (가)에서 시간적 배경은 해가 지는 저녁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오답 피하기

① 두 작품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묘사는 주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는 것인데, 두 작품에 모두 나타나 있다.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여 묘사하면 회화성은 당연히 강조된다.

⑤ (가)의 공간적 배경은 도시이고, (나)의 공간적 배경은 토속적 공간이다. <보기>에 박용래가 사라져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고 나와 있다. 재래의 것들을 통하여 바람을 드러내는 것을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이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참고 : 한국 문학에서는 1931년경 프로문학의 퇴장과 일제강점기 균국주의의 대두를 계기로 나타났으며, 일명 주지주의라고 일컬었다. 김기림(金起林)이 시의 낭만주의적 요소를 배격하고 시작(詩作) 자체의 의식성을 강조하는 시의 기술주의(技術主義)를 주장하

면서 형태화하였다. 김기림은 모더니즘 시운동을 벌였으며, 그 특징은 ① 정서적 우세에서 지성적 우세로, ② 현실에 대한 초월적 태도에 대하여 비판적 적극성을, ③ 청각적 요소에 대하여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소설에서는 1934년 최재서(崔載瑞)가 주지주의 문학을 소개하고, 실제로 이상(李箱)의 작품을 중심으로 심리주의적 경향을 비평하면서 전개되었다. 1930년대 모더니즘의 대표적 문인들로는 프랑스의 P. 발레리, 영국의 T.E. 흄, T.S. 엘리엇, H. 리드, 혁슬리 등의 이론과 작품의 영향을 받은 정자용(鄭芝溶) · 김광균(金光均) · 장만영(張萬榮) · 장서언(張瑞彦) · 최재서(崔載瑞) · 이양하(李易河) 등이 있다. 김기림의 장시 《기상도(氣象圖)》(1936)는 엘리엇의 《황무지》의 영향을 받은 당시 모더니즘의 대표작이며, 김광섭(金光燮) · 김현승(金顯承) 등의 시인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1950년대의 김수영(金洙映) · 박인환(朴寅煥) · 김경린(金璟麟) 등과 '후반기' 동인들에 의해 모더니즘 시운동이 전개되었다. 1960년대의 '현대시' '신춘시' 동인들은 1930년대의 모더니즘이 상실했던 상징적 내면의식과 초월의식을 형상화하려 했다.)

[34~38] (현대 소설)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작품 해설】

• **해제** :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조마이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좌절과 저항을 그린 작품이다. 조마이섬 전체가 소수 권력자의 손에 넘어가면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박한 생존의 위기를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은 홍수를 계기로 절정에 달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갈밭새 영감의 행동을 통해 섬사람들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간적 배경이 되는 조마이섬은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로 인하여 황폐한 모래톱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부조리한 사회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줄거리** : 낙동강 하류의 명지면에 살았던 건우라는 소년과 그의 할아버지 갈밭새 영감, 그리고 소년의 젊은 훌어머니를 중심으로 이 작품은 전개된다. 화수는 중학교 교사로서 '나룻배 통학생' 건우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된다. 화수는 소년이 살고 있는 섬이 실제 주민과는 무관하게 소유자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쓴 건우의 글을 읽는다. 화수는 어느 날 섬을 방문하게 된다. 건우

의 아버지는 일제 때는 징용에 끌려 갔고, 6·25전쟁 때 전사했다.

이 '조마이섬'은 일제 시대에는 동척의 소유였고, 광복 후에는 나환자 수용소로 변했다. 그것을 반대하는 윤춘삼 영감은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하였다. 그 후 어떤 국회의원이 간척사업을 한답시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 논밭은 섬사람들과 무관하게 소유자가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홍수가 범람하게 되자 섬사람들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 눈가림으로 만들어 놓은 둑을 헬어버리려 한다. 이것을 제지하는 '유력자의 앞잡이'가 나타나자 건우의 할아버지는 이 깨페를 물속에 던져버린다. 섬사람을 홍수에서 구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하지만 건우의 할아버지는 '법과 유력자' 때문에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불들려 간다.

• 등장인물

- 나 : 건우의 담임이자 소설가. 이 작품의 관찰자(서술자)이자 고발자 역할을 수행한다.
- 갈밭새 영감 : 건우의 할아버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어민으로서, 유력자들의 횡포에 맞서 조마이섬을 지키려는 의지가 굳은 인물이다.
- 건우 : K 중학교 학생으로 순박하다. 조마이섬에서 나룻배로 통학을 한다.
- 윤춘삼 : 부당한 옥살이를 하기도 하며, 갈밭새 영감과 같이 의로운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 주제 : 소외된 민중들의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34 |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 ④

서술자 '나'는 정갈한 건우의 집을 묘사한 후, 그와 같은 정갈함이 건우 어머니의 성격에 있음을 언급하고, 서술자는 그녀의 성품을 호의적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답 피하기

- ① 공간적 배경을 서술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권력자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니다.
- ② '마루청', '장독대', '장다리꽃' 등 농촌의 일상적 삶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③ 서술자인 '나'가 '건우 어머니'를 우호적 입장에서 평가한 것을 논평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성격 변화 양상을 서술하는 것은 아

니다.

- ⑤ 건우 어머니의 과거의 삶을 요약하는 것은 그녀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현재와 과거의 사실의 교차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향후 전재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35 |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 ②

‘일류 중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건우 어머니의 약착같은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지, 모자의 교육관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거칠어 있는’이란 구절에서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③ ‘사과 궤짝 같은 것에 종이를 빌라 쓰는’이란 구절에서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임을 알 수 있다.
④ 선거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있는 ‘소감’의 내용을 통해 건우가 정치 현실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둑’을 선조 때부터 만들어 왔고, 그 과정 속에 힘겨운 싸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섬의 내력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6 | 장르 변화의 적절성 파악

정답 : ④

〈보기〉에는 인물 간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인물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인물을 등장시켰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E.L.S.’가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할 때 사용하는 촬영 기법이기 때문에 조마이섬 지형적 특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② 소설에는 서술자의 서술로 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③ ‘내일은 결판을 낼끼라고’와 같은 대사를 삽입함으로써 이후 벌어질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고 동시에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대명천지에~없는 기다!’란 대사를 #98에서는 건우 증조부가, #99에서는 건우 할아버지가 구사하

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37 |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정답 : ③

이 글에 따르면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는 건우가 쓴 〈섬 얘기〉에 몇 가지 일화를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건우의 〈섬 얘기〉를 읽었고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몇 가지 일화를 더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글에서 저항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은 건우 할아버지와 춘삼이지 건우는 아니다. 따라서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글에 의하면 ‘나’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씨가 들려 준 조마이섬 이야기에 대해 ‘얼마나 원한이 컸단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한 ‘나’의 공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서술자인 ‘나’가 서술하는 이야기는 건우가 쓴 〈섬 얘기〉에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 준 조마이섬 이야기’를 덧붙인 이야기이다. 그런데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섬 얘기〉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나’의 이야기, 건우가 쓴 〈섬 얘기〉,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 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거의 동일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나’의 이야기는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한 의도에서 창조된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인 ‘나’, 건우, 그리고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는 모두 권력에 의해 고통 받은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④ ‘나’가 서술한 이야기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주된 내용은 권리자에게 땅을 빼앗긴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나’의 이야기는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건우 할아버지가 들려 준 이야기는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권리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8 | 한자성어의 활용

정답 : ①

조마이섬 사람들이 원한이 매우 커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각골통한(刻骨痛恨)’이 가장 적절하다.

*각골통한(刻骨痛恨) : 뼈에 새기듯이 마음에 깊이 사무쳐 맷힌 원한

오답 피하기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마음속으로 애를 쓰며 속을 태움

③ 전전반측(轉轉反側) :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어버이가 돌아가시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슬픔을 이르는 말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 이미 잘못된 것을 뒤늦게 뉘우쳐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 2) 이미 잘못된 것을 뒤늦게 뉘우쳐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음.

[39~42]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임경업전’

【작품 해설】

• **해제**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조선 인조 때의 명장 임경업의 일생을 영웅화한 소설이다.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과장, 변용하여 임경업을 민중의 영웅으로 형상화하여, 임경업만이 호국군에게 승리할 수 있는 영웅이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병자호란의 패배가 결코 우리의 힘이 모자라서 그리 된 것이 아님을 암시한 것이다. 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한 복수심과 개인의 사리사욕만 일삼던 간신에 대한 분노를 민족적 차원에서 소설로 승화시킨 이 작품을 통해 당시의 민족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줄거리** : 충청도 충주 달천촌에서 태어난 임경업은 25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백마강 만호가 되고, 천마산성 중군이 되어 산성을 축조한 뒤 사신 이시백을 따라 중국에 들어간다. 이때 마침 호국이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에 구원을 청한다. 명나라에는 마땅한 장수가 없어서 조선의 임경업이 청병대장이 되어 출전하여 호국을 구원한다. 귀국 후에 호국이 강성하여져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니,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부윤으로 삼아 호국의 침입을 막도록 한다. 임경업의 용맹을 두려워한 호국은 의주를 피해서 함경도로 돌아 도성을 공격하여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의주에 있던 임경업은 이 소식을 듣고 회군하는 적을 공격하려 하였으

나, 호국군에게 인질로 잡혀가던 세자와 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 준다.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고 조선에 청병을 하면서 임 장군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김자점의 주청으로 조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호국에 파견하였는데, 임경업은 옛날 의리를 생각해서 명나라와 내통하여 명나라로 하여금 거짓 항서를 올리게 하고 귀국한다. 이 사실을 안 호왕은 다시 임경업을 호국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지만, 임 장군은 호국의 간계를 미리 알고 호송하던 호병을 죽이고 중이 되어 명나라로 도망한다. 임 장군은 명군과 합세하여 호국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승 독보의 배신으로 호군에게 잡혀 호국에 이르게 된다. 호왕은 오히려 임 장군의 위엄과 충의에 감복하여 세자 일행과 임 장군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다. 임 장군의 귀환 소식을 들은 김자점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왕을 알현하고 나오는 임 장군을 암살한다. 왕은 꿈속에서 임장군의 혼신을 보고 김자점을 잡아 처형하고 임장군의 충의를 포상한다.

• **주제** : 임경업의 영웅적 활약과 호국에 대한 정신적 승리

39 | 서사 내용의 파악

정답 : ④

세자와 대군은 이미 귀국했다. 김자점은 임경업을 모함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⑤ 중략 뒷부분을 보면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은 언제나 오리오.”라고 나와 있다. 이를 통해서 주상이 임경업이 함께 오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 사건의 의미 파악

정답 : ⑤

‘임경업의 소원을 들어준 앞의 사건’과 ‘임경업 부마 삼기 사건’을 ‘마찬가지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에서 두 사건의 유사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두 사건이 사건 전개의 연속성을 강화한다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② 공주는 임경업의 관상을 보기 자청하고 있으므로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41 | 인물의 대화 내용 파악

①에서 임경업은 억류되고 싶어한다는 것은 그가 부마가 되어 호국에 남아 있고 싶어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임경업은 자신이 조강지처가 있다고 밀하며 부마가 되기를 거절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⑦은 호왕이 항복하면 왕에 봉하겠다는 화유에 대해 거절의 의미로 발화한 것이고, ⑩은 호왕이 사위가 되어서 부귀를 함께 누리자는 권유에 대해서 거절의 의미로 발화한 것이다.

42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 ②

임경업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무슨 연고인 줄 모르고 울고 슬퍼하는 모습이 이 글에 나온다. 의주 백성들과 청중들을 구분하여 사고하여야 한다. 의주 백성들은 임경업이 잡혀가는 이유를 모르지만, 청중들은 앞부분에서 이미 김자겸의 모해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청중들이 무슨 연고인 줄 몰라서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임경업’이 ‘호왕’을 꾸짖는 장면을 실감나게 낭독하면 청중은 작중 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갖게 되므로,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되고 장군의 기개가 ‘호왕’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는 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청중에게 통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

[43~45] (고전 시가)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작품 해설】

• 해제 : 이 작품은 작가가 경북 안동의 도산 서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때에 지은 연시조로, 전6곡(언지)과 후 6곡(언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지(言志 : 뜻을 말함.)’가 삶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노래한 것이라면, ‘언학(言學: 학문을 말함.)’은 인생관 중 학문에 관한 것만을 따로 떼어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조에는 인간 속세를 떠나 자연에 흠뻑 취해 사는 자연 귀의 생활과 후진 양성을 위한 강학(講學), 사색에 침잠하는 학문 생활이

정답 : ⑤

솔직 담백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이 작품에 대해 작가 자신이 붙인跋문에는 이 시조를 지은 이유와 그의 문학관이 나타나 있다.

• 현대어 풀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시골에 파묻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산들 어떠하랴?

더구나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고질병처럼 된 벼룩을 고쳐서 무엇하랴?

〈제1수〉

안개와 노을의 멋진 자연 풍치로 집을 삼고,
맑은 바람 밝은 탈을 벗으로 삼아서
어진 임금을 만난 좋은 시대에 노병(老病)으로만 늙어가는구나.

이 중에 바라는 일은 사람의 허물이나 없었으면,

〈제2수〉

예로부터 내려오면 순박한 풍속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짓말이로다.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어질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영재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것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느냐.

〈제3수〉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난초가 깊은 골짜기에 피었으니 자연의 그 냄새를 맡기가 좋구나.

흰 구름이 산마루에 걸려 있으니 자연의 경치가 보기 좋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임금님을 더욱 잊을 수가 없구나.

〈제4수〉

산 앞에는 대(臺 : 낚시터)가 있고, 대 밑으로는 물이 흐르는구나.

폐 지어 나는 갈매기들은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하여 희고 깨끗한 말(어진 사람)은 멀리 뛰어갈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제5수〉

봄비람이 부니 꽃은 산에 가득 피어 있고, 가을밤에는 달빛이 누대에 가득하니,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마찬가지로다.

더구나 고기는 물에서 뛰놀고, 소리개는 하늘을 날으니 흘러가는 구름은 그늘을 짓고, 밝은 태양이 빛나

는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제6수〉

• 짜임

- 1연 : 아름다운 자연에 순응하면서 순리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노래
- 2연 :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여 살며 태평성대 속에 병으로 늙어 가는 작자의 모습을 노래
- 3연 : 순자의 성악설을 반대하고 맹자의 성선설을 지지. 세상의 많은 영재들에게 순박하고 후덕한 풍습을 강조
- 4연 : 벼슬자리를 떠나 자연을 벗하며 살아 도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
- 5연 : 자연을 멀리하는 현실 개탄
- 6연 : 대자연의 웅대함에 완전히 도취된 작자의 모습을 노래

• 주제 : 자연을 관조하며 학문에 정진함

43 |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 정답 : ③

제3수의 시적 대상은 ‘순풍’, ‘인성’, ‘허다영재’가 있고 제4수의 시적 대상은 ‘유란’, ‘백운’, ‘피미일인’이 있다. 제3수의 대상은 인간 세상의 순박한 풍속과 인간의 본성 등의 세상에 관련된 대상인데 제4수 대상은 ‘유란’, ‘백운’이 자연을 의미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시적 대상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④ 제4수에서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으로 ‘유란’과 ‘백운’을 배치되었고, 제5수에서 ‘산전에 유대’와 ‘대하에 유수’라는 장면이 배치되었다. 이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평면적 느낌이 아니라 입체적 느낌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봄바람에 꽃이 온산에 가득 피어 있고 가을밤에 달빛이 누각에 가득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내용을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다. 동일 내용을 반복해 주면 내용의 의미가 더 강조 되기 때문에 인식이 점증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사시가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세히 표현했던 것을 4음절의 시어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 의식을 집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4 | 시어에 대한 이해

정답 : ④

갈매기는 세속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이 무심하게 자연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갈매기’에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교교백구’는 자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먼 곳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속에 관심을 두는 인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교백구’를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존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② 화자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순박한 풍속이 있고 인간의 본성이 어진 모습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순풍’과 ‘인성’이라는 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 ③ 심미적이란 마음속으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이고, 완상은 천천히 감상한다는 의미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감상하며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술이다.
- ⑤ 시 속에서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시간, 공간, 자연물, 사물, 이미지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여 표현하는데, 꽃이 산에 가득 차 있다는 것과 달빛이 누각에 가득 차 있다는 표현은 자연을 바라보는 화자의 충만감이라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5 |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

정답 : ③

이 글에서 화자는 ‘순풍’ ‘인성’ 등을 중시하고 ‘피미 일인’을 통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화자가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또한 이 글의 화자는 한 개인의 소망으로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도 ‘성군의 가르침을 노래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고, ‘전원의 즐거움을 얻고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고 싶다.’고 개인적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 피하기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자신의 처지에 대해 민족하고 있기 때문에 불우한 처지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⑤ 이 글에서 화자는 현재 자연 속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위글이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종로 합격예측 서비스

‘6월 모평’으로 보는 합격 가능성!

6월 14일(토) OPEN 무료제공

빠르고 편리한 맞춤검색

- 유리한 대학·학과순으로 리스트업!
- 전형요소/서·연·고/의·치·한/대학별/
(유사)학과별 빠르고 편리한 맞춤 검색 가능

성적 분석 및 지원전략

- 영역별 분석, 영역조합별 분석
- 각 영역 환산점수별 유불리 분석
- 내 성적으로 가능한 대학 정보제공

정밀한 결과 분석

- 대학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준치 반영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번에 비교

| 회원가입문의 02 319 3199 | 종로학원 ▾ 검색

매일 20분 학습으로 나도 수능 1등급!



종로핵심체크 SLP

- 연간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

| 수능 1 등급 비결! |

핵심체크 문제/풀이

국어 · 영어 · 수학
(연 28회 + FINAL 2회)

종로핵심체크 SLP

성적분석 시스템

온라인 응시/채점
실시간 등급 확인

동영상 강의

전 문항 해설강의

회원가입문의

02 2631 0126

종로학원

검색

종로학원

